

지역 소식통

김제, 농촌지도사업 신청

김제시가 농업인구 감소와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는 올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지도사업 12개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최근 고령화 따른 농업인구 감소와 인력부족에 대응하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농촌지도사업은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젊고 강한 차세대 농업인 육성, 지역 농업에 기반한 6차산업 확대, 농가 소득증대 및 가치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이며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인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내수면 신제품

토하양식 벤치마킹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고부가가치 사업 벤치마킹으로 토하마을 조성사업에 힘을 보탠다.

김제시에 따르면 2023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토하마을 조성사업(총사업비 48억원) 추진과 관련 토하양식장 5개소 조성을 앞두고 토하양식에 대한 특성과 서식 환경 등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토하양식 벤치마킹을 추진했다.

토하마을 조성사업은 토하(새뱅이)를 내수면 신제품 양식으로 생산, 양식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산면 황곡마을 주민 20명이 금산면 일원에 모하관리센터 1개소와 개별 양식장 20개소를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중 양식장은 2024년 상반기 1개소, 하반기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 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에 전지훈련 선수단 몰려

1월에만 유소년 축구·테니스·태권도팀 500명 방문

완주군에 선수들이 몰려오고 있다. 완주군은 1월 한 달에만 완주군을 찾는 전지훈련팀 선수들이 500여 명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시작해 오는 19일까지 유소년축구 7개팀이 완주에서 훈련을 갖고 있다. 선수단 272명, 임원과 지도자까지 포함하면 35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용진 생활체육구장, 산업단지 중앙공원, 상관축구장 등 관내 6개 구

장을 사용하고 있다.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선수들은 관내 숙박업소에 머물고, 주말에는 학부모들의 방목까지 이어져 지역 상권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태권도팀도 완주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우석대 실내체육관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한 서울 동성고 태권도팀 20여 명은 16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국제규격을 갖춘 완주군 테니스장에

서는 5개 팀 80여 명이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다.

완주군은 뛰어난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지훈련, 대회를 적극 유치하며 스포츠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는 13개의 축구장과 국제규격을 갖춘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완주군체육회, 우석대 태권도학과, 전북 체육중고등학교 등 전문체육기관·단체와 함께 스포츠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에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유소년 전지훈련 7개팀 지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2023년도에 유소년축구와 국가대표 레슬링팀 등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1만5,000여 명이 완주군을 찾았고, 약 42억 원의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2만 명 이상이 지역을 찾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우리 지역의 멋과 맛을 알리고, 향후 재방문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을 찾은 전지훈련팀 선수들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 202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신동진·참동진' 2개 품종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1일 '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신동진, 참동진' 2개 품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심의를 위해 읍·면·동(19개소), RPC(10개소), 행정기관(1개소)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 매입 품종 선호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해, 90% 이상이 신동진을, 그 뒤에 참동진을 희망한다는 결과를 파악했다.

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 김제시의회,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공덕농협RPC, 이택영농RPC, 김제시 농민회, 김제시 농업경영인회, 김제시 농촌지도자회, 김제시 이통장연합회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열띤 토의 속에 진행됐다.

신동진의 경우 김제 지역 농업인들이 오랜 기간 재배 해오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김제시는 지난 11일 '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기여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선정했다. 또, 신동진을 개량해 품질은 신동진과 유사하면서 비나 바람,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시킨 참동진도 선정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매입품종 종자 확보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된 신동진과 참동진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는 지난 10일 김제시치과의사회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치(틀니), 보철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보건소 노인 의치 보철 지원

김제시치과의사회와 의치 보철 지원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가 지역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의치(틀니)보철 지원을 시작한다.

김제시 보건소는 15일부터 저소득층의 노인 의치(틀니)보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만6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에게 의치 및 보철비를 지원한다.

특히 시는 자체 시비를 추가, 4,77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사각지대에 있는 구강건강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김제시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앞서 지난 10일 김제시치과의사회(회장 아침에치과 조승모원장)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치(틀니), 보철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의치 장착 및 시술 편의제공, 1년간 무료 사후관리 등 김제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도모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상호 연관 되어 있어 노년기 건강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구강건강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김제시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제고에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는 이달말부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 대상자 선정 및 협약치과에 시술 의뢰 등 2024년도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킬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지역보건팀(☎540-1393)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식품 가공분야 적극 지원

가공사업장 품질 지원·열대과일 기술 상품화 등 4개 사업

완주군이 올해 농식품 가공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12일 완주군은 2024년도 농촌지원 농식품 가공분야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화 사업 등 2억 7,000만원 규모의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은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 △농식품 부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등이다.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지원팀(문의 063-290-3325)에서 가능하다.


사업별 신청 내용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2024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안내' 책자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대상자 선출은 접수 후 사업별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지 조사를 통한 성과 타당성과 적합성을 사전 검토, 2월 중 농산하협동심의회를 거친 후 확정할 계획이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도 농산물 가공사업의 발전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